

“현단계 ‘맑스주의 위기’와 민중운동” 논평

토론자 : 김동춘(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고성국(학단협 정책위원장)

제3회 현단계 “맑스주의 위기”와 민중운동

김동춘 : 김동춘입니다.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실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 얘기하면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운동적인 문제를 연구자들이 얘기하면 재 뿌리는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운동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변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의 상대적인 차이점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

다. 저는 앞에서 발제한 다섯분의 발제에 저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다섯분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김성식, 송병춘, 양재원 선생님 3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정적인 공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가의 ‘화자적 품성’이 오히려 문제

먼저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양재원 선생님의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지적하고



사회자 : 장상환
(경상대 교수)

싶은 것은 운동이라는 것이 목표가 없이 전술만으로 운용될 때 어느 방향으로 가겠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백여 년 전에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인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베른슈타인이 나중에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한 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목표에 너무 집착해서가 아니라 목표와 현실을 결합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운동이지만 상당정도는 학자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지 실제로 최종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주의 붕괴라는 것은 실제로 한국의 운동가들에게나 한국의 진보적인 진영에 큰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최형록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발제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사회주의의 붕괴를 해명하고 맑스주의의 이론의 공백을 메우고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변혁이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자 입장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저의 관심의 출발점은 맑스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선상에서 맑스주의 위기 문제를 논의해야지, 위기를 해결하면서

현실로 내려오고자 하면 언제 내려오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 뛰어난 연구자들이 30년 매달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독창적인 변혁이론을 만들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역시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언제까지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자 하는 얘기만 할거냐는 거죠. 그러한 얘기는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순수성 견지 못해 붕괴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황주석 선생님의 발제에 관한 것인데, 처음의 도입부분의 얘기는 그런대로 공감하지만 실제 발제내용은 상당히 어색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것이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실운동이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가 모두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스탈린의 선택이 부르주아적이고 타협적이었다고 한다면, 스탈린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문제는 스탈린이건 북한의 김일성이나 유럽의 사회주의자들 이건 그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

다.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했던 조건, 그것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역사적인 실현지형을 갖는 인간의 정신구조의 변화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마당에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계급성을 견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박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80년의 광주를 경험했고 70년대의 유신시대를 겪어 보았지만 그 암울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고 파쇼적인 통치가 강화됐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 곧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노동자가 혁명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은 초기 자본주의 단계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른바 1918년까지 혁명의 시대라고 지칭되는 부분, 191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서구 유럽에서는 혁명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 혁명적인 정세가 오게 됐던 것은 바로 초기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모순의 격렬성,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배제, 국가권력의 폭압성, 이런 부분이 사회주의를 호소하게 만들었지만 실제 사회주의를 건설한 나라는 극소수, 혹은 러시아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운동은 혁명화됐

지만 사회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억압적이라고 해서 이념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병춘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운동이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분을 재고해보고 지금은 전술적인 수세기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가 과연 그 정도로 전술적인 수세기로 인식할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이 일단 결성되었고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조건 속에서는 노동자들이 혁명적인 방법에 호소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체교섭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발목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교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된 틀 내에서 자기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그만한 가능성이 라도 발견한 노동자들에게 이 체제는 허구니까 너는 이 체제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차원이 더 높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여러가지 상황변화는 아까 발제에서도 여러번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성 태제의 진위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노동계급이 혁명성을 지닐 것이라고 하는 테제,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노동자가 사회변혁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이 테제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노동자들이 혁명성을 지닌 경우는 오직 예외적으로만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혁명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소박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이 혁명성을 지니지 않고 있고 뒤로 나자빠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타협하기에도 어려운 역량수준

그 다음에 피티독재를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티독재를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피티독재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규범론이 존재론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제자께서는 존재론과 규범론을 완전히 합쳐서 피티독재론이 지금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피티독재론을 할 조건이 되냐 하는 말 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나라가 피티독재

론과 멀리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혁명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혁명이 일정 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계급론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죠. 서구의 노동자들이 타협을 했는데 이것은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한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완전히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할 역량도 없어요. 그렇다면 타협한 서구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의 노예가 됐느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혁명을 포기하고 결국은 체제에 타협했으니까 노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민중당의 실패는 필연적이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김성식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민중당의 실패가 필연적이지는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과거의 민중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지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민중당의 실패는 필연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이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보적인 대중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등가가 아니라는 것이

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발제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정서와 의식과 제도적인 조건들이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독자정당을 추진해왔던 측은 상당 정도로 주관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조건에 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균등 발전을 이루고 있죠. 이런 조건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 노동자가 다수가 됐고 노동자가 착취받고 억압받고 있고 기존의 정당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상황 판단에서 곧바로 진보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비약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정도로, 외람되게 얘기하자면 민중당을 하였던 분들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판단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을 전술단위로 볼 수 없고 하나의 분견대로 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곧 모든 운동의 에너지가 당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당으로 모든 운동을 결집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은 이미 실천적으로 검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지적도 제 느낌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중들

은 70년대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이미 백년동안 서양에서 다 했기 때문입니다. 서양사람들이 맑스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크게 떠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과거 우리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성국: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단협 워크샵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사실 첫번째, 두번째는 상품성이 꽤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참석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학술진영이 실제 실천활동가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좀더 배우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만 시간상, 그리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 의견을 생략하고 질문만 하였습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형록 선생에 대해서인데 아무리 질문이지만 그래도 제 견해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저는 최형록 선생의 발제문이 처음부터 좀 전투적인 단원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반응은 잘못된 것이고 오로지 운동가라면 세

번째밖에 없다고 시작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랬으면 김성식선생은 시작부터 비운동가로 취급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논의로 우리가 무엇을 생산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적어도 양심적인 연구자라면 첫번째, 혹은 두번째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고민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최선생님의 발제문을 봤는데 여러가지 좋은 격언도 인용해주시고 해서 많이 배웠는데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결론 부분에 중대한 민주화를 전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세력의 형성을 목표로 우리 운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른바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그것은 변혁을 매개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정책대안은 이른바 전위조직에 의해서, 또 민주적이되 집중성을 지닌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감이 안 잡힙니다. 독창적 변혁이론이 한반도의 맑스이론이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독창적 변혁이론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게 한반도에 뿌리내린 형태의 한반도의 맑스즘이다, 이것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을 하면, 또는 이런 이론을 정립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 중대한 민주화를 전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세력의 형성, 이것을 이른바 정책대



김동훈(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안이라는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대중적으로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뭔가 하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민중회의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민중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의 의미는?

두번째로 김성식 선생은 발제문에서 진정추의 신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동감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진정추가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이른바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라는 문건을 내부 토론용으로 선택한 것 같고, 또 그와 동시에 앞으로 건설할 당명으로 대중이 원하면 바꿀 수 있지만 일단 진정추는 한국노동당이라는 당명을 고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한국노동당이라는 계급적 정당의 이름을 우리가 고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의 중심에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민중연대당으로서 그 당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설을 해놓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선생의 말씀은 진정추의 신전략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채 자기모순을 씻어보지 못한 자기 전통으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지 확인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 노동자 중심의 민중연대라는 문제와 여기 김선생



고성국(학단협 정책위원장)

께서 앞으로 있어야 할 대중정당의 조직원리의 하나, 또는 핵심으로서 민주적 등가적 연대로서의 민주주체가 사실은 구민중당의 민주주체 민중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내용에서 정말로 어떻게 다른지를 추가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변화에 못 미치는 운동대응이 문제

세번째는 황주석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인데 저는 우리 운동이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학술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이론과 실제,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방도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야 할 측면도 있고 분리해서 해결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예를 들어 학술진영을 보면 학술진영의 위기의 징후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진보적 학술진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직하는 사람이 대량으로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를 맑시즘과 연계시키거나 해서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맑시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도 취직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보적 학술진영의 대중운동의 조직화라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시켜야 할 문제와 분리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부터 다 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고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황선생님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이게 밝혀져야 대응의 핵심도 밝혀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꼭 이 문제와 결합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얘기하다 보면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 '광주의 혼'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입니까? 그냥 추모식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과의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광주를 직접 겪었던 광주 사람들이 광주 혁명혼을 다 잊어버리고 변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황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처럼 사회의 변화가 12년 후인 5월에 어떤 투쟁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거칠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왜 5월이면 투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5월에 다시 투쟁을 해야 한다면, 5월이 지금도 살아 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을 직접 대중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투쟁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5월까지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기는 이미 와 있다

그 다음에 송병춘 선생의 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두서 없이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발제자들은 사실 맑스주의의 이론적 위기냐, 맑시즘과 연관된 여러 운동실천의 위기냐 하는 식으로 위기에 대해 접근했는데 상당히 독특하게 통일로부터 접근한 데서 저는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는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위기가 올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앞으로 올 통일 때문에 이미 위기가 와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송선생님이 우리 운동이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위기가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로 인해서 위기가 온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설명을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할 경우에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통일로 인해서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흡수통일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하며 아까 쪽 설명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올 위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범민족대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단독직립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범민족대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할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범민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위기의 핵심을 통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운동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져야 저는 추후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략적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양선생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차이가 전술적 방침에서, 입장차이에서 연유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해져야 한다. 우리 운동 진영 내에 같은 민민진영이라고 서로 생각하지 않는 정파들이 분명히 존재할 만큼 차이에는 전략적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철학과 세계관에서부터 분명히 차이가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또한 전술적 수준의 차이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책없는 대동단결론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드러내놓지 않고 그동안 대충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 있으면 대선이

라는 국면 속에서 교묘하게 전략적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대선 이후에 무슨 정치세력화 논의가 있으면 그 논의 속에 이 전략적 차이라는 것이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다고 해서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라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자당이나 국민당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과 전술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략이 달라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우리들 내부에서도 다르다면 이젠 서로 다른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당장의 실천, 당장의 국면 속에서 전술적 차이를 하나하나 구체적 인 정치적 실천, 혹은 대중적 실천 속에서 해소해 나가는 문제,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전략적 차이까지도 가급적이면 좁혀 보려는 식의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와는 수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지는 말씀을 저로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